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청약 가능' 규칙 고시

분양 과열 억제·실수요자에 도움 줄 듯

일부 아파트 분양 프리미엄

고시 발효 이후 절반으로 뚝

직장인 박모(32)씨는 올해 광주에 공급된 7곳의 민간아파트에 청약에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지며 내집마련에 실패했다. 박씨가 보유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산점 20점의 1순위, 박씨가 청약마다 고배를 마신 이유는 간단하다. 가점이 훨씬 높은 '점프통장'(외지에서 온 청약통장)이 있더라 분양현장에 등장하며 당첨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광주시가 내놓은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가 박씨처럼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게 적잖은 희망이 되고 있다. 고시 발효 전후로 광주지역에 최근 분양된 일부 아파트의 분양 초기 프리미엄이 1000만원 가량 하락하는 등 과열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발효된 이 고시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우선 공급된다. 기존엔 모집공고일 전날에 광주에 주소를 등록하더라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3개월이라는 기한을 뒤, 점프통장이 마구잡이로 청약시장을 교란시킬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지역의 한 분양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외지통장이 1순위 당첨자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기면서 실수요자인 광주시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시 발효를 전후해 최근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프리미엄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점프통장이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막히면서 분양시장 과열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광산구에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현장에서 처음 붙는 이른바 '초피'(첫 프리미엄)가 1000만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업자들이 그동안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구입한 점프통장에 프리미엄을 붙인 탓에 2000만원대에 형성되던 것이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병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뺏다방이 더 이상 분양시장을 좌지우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최근 선운지구에 일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한 것도, 분양시장이 안정화되는 현상으로 본다"고 광주시의 거주기간 제한 규칙 고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통장들이 분양현장마다 300~500개씩 청약하면서 가점이 낮은 지역 실수요자들은 당첨확률 역시 낮아져 내집마련에 실패하는 게 태반이었다. 이런 점프통장과 '묻지마 투자'가 몰리면서 광주지역 최근(2~5월) 청약 경쟁률은 평균 70대 1까지 치솟았다.

지역의 한 분양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외지통장이 1순위 당첨자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기면서 실수요자인 광주시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시 발효를 전후해 최근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프리미엄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점프통장이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막히면서 분양시장 과열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광산구에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현장에서 처음 붙는 이른바 '초피'(첫 프리미엄)가 1000만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업자들이 그동안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구입한 점프통장에 프리미엄을 붙인 탓에 2000만원대에 형성되던 것이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병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뺏다방이 더 이상 분양시장을 좌지우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최근 선운지구에 일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한 것도, 분양시장이 안정화되는 현상으로 본다"고 광주시의 거주기간 제한 규칙 고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통장들이 분양현장마다 300~500개씩 청약하면서 가점이 낮은 지역 실수요자들은 당첨확률 역시 낮아져 내집마련에 실패하는 게 태반이었다. 이런 점프통장과 '묻지마 투자'가 몰리면서 광주지역 최근(2~5월) 청약 경쟁률은 평균 70대 1까지 치솟았다.

지역의 한 분양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외지통장이 1순위 당첨자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기면서 실수요자인 광주시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시 발효를 전후해 최근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프리미엄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점프통장이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막히면서 분양시장 과열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광산구에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현장에서 처음 붙는 이른바 '초피'(첫 프리미엄)가 1000만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업자들이 그동안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구입한 점프통장에 프리미엄을 붙인 탓에 2000만원대에 형성되던 것이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병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뺏다방이 더 이상 분양시장을 좌지우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최근 선운지구에 일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한 것도, 분양시장이 안정화되는 현상으로 본다"고 광주시의 거주기간 제한 규칙 고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통장들이 분양현장마다 300~500개씩 청약하면서 가점이 낮은 지역 실수요자들은 당첨확률 역시 낮아져 내집마련에 실패하는 게 태반이었다. 이런 점프통장과 '묻지마 투자'가 몰리면서 광주지역 최근(2~5월) 청약 경쟁률은 평균 70대 1까지 치솟았다.

지역의 한 분양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시장에서 외지통장이 1순위 당첨자 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부동산 업자들이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기면서 실수요자인 광주시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시 발효를 전후해 최근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프리미엄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점프통장이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막히면서 분양시장 과열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광산구에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현장에서 처음 붙는 이른바 '초피'(첫 프리미엄)가 1000만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업자들이 그동안 수백만원의 돈을 주고 구입한 점프통장에 프리미엄을 붙인 탓에 2000만원대에 형성되던 것이 절반으로 깎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병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뺏다방이 더 이상 분양시장을 좌지우지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최근 선운지구에 일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한 것도, 분양시장이 안정화되는 현상으로 본다"고 광주시의 거주기간 제한 규칙 고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4.03 (-1.16) 금리 (국고채 3년) 1.73%

▲ 코스닥 722.51 (+6.08) ▼ 환율 (USD) 1118.90원 (-4.40)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왼쪽 첫번째),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왼쪽 두번째)과 함께 기아차 광주공장 정문에서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메르스 긴급점검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방역 대책회의

현대차그룹 수뇌들이 9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메르스 대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김종웅 공장장 등 광주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메르스 예방 대책 회의를 열었다. 전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것으로 박한우 기아차 사장도 함께했다. 광주공장은 현재 매일 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장 4개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 공장식당과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광주공장 통근버스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으며 광주공장 산업안전보건센터에는 유사시를 대비해 임시격리실도 마련했다.

윤여철 부회장은 대책회의에서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라는 국제적인 행사도 열리는 만큼 광주공장도 이에 부응해 예방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광주공장 인근 지역까지 방역활동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주거시설 낙찰가율 3개월 연속 100% 넘어

5월 100.8% 기록

광주지역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3개월 연속 100%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9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광주의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5월 100.8%를 기록했다. 전달에 비해 7.1%포인트 하락했지만 제주와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이다. 평균 응찰자는 0.7명 줄어 5.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5.2명을 기록한 뒤 6개월 만에 5명대로 내려앉았다.

업무·상업시설 낙찰건수는 5건으로, 한자리수로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1년 1월 경매통계 기록 이후 처음으로 낙찰가율이 100.0%를 기록했다.

5월 광주에서 가장 높게 낙찰된 물건은 북구 양산동 소재 공장으로 감정가의 70%인 25억4332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고속 광주~공주~세종시 노선 내일 개통

금호고속이 11일부터 광주와 공주, 세종시를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개통한다. 광주~공주~세종시 노선의 상행선은 오전 9시25분, 오후 2시20분, 오후 6시20분으로 하루 3회 운행한다. 세종시에서 출발하는 하행 시간은 오전 8시55분, 오후 1시15분, 오후 6시10분으로 2시간45분이 소요된다. 공주에서 출발하는 하행 시간은 오전 9시20분, 오후 1시40분, 오후 6시35분으로 2시간20분이 걸린다. 운행요금은 광주~공주 구간 1만1400원, 광주~세종시 구간 1만2700원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메르스 예방 ... U대회 만전

라마다 플라자 광주 호텔(대표 김대원)은 9일 광주 U대회 성공기원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을 위해 광주 서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텔 전관에 대한 멸균·방역을 실시했다.

광주 U대회 본부호텔로 지정된 라마다 호텔은 광주 U대회 기간 세계 각국 관계자들의 투숙이 예정된 만큼 메르스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바이러스 감염을 막고 호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라마다 호텔은 또 메르스 확산을 대비해 지난 3일부터 'MERS FREE'를 목표로 '3무(바이러스, 세균, 해충) 위생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레스토랑과 각종 엘리베이터 입구를 비롯해 객실마다 손 세정제와 항균스프레이를 구비해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9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 호텔 내부 객실을 소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 '에너지밸리 연구센터' 업무 개시

지역 R&D 과제 발굴·육성

'빛가람 에너지 밸리의 성공'을 주도할 에너지 밸리 연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전력은 9일 본사에서 조완희 한전 사장과 문승일 기초전략연구원장, 홍중희 전남테크노파크원장 등 지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연구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밸리 연구센터는 'R&D를 통한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앞으로 빛가람 에너지 밸리를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적인 에너지 R&D 클러스터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협력 R&D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2017년까지 광(光) 기술과 복합신소재, 스마트센서 등 광주·전남지역에 특화된 R&D 과제를 발굴 및 육성하고, 찾아가는 R&D 전주기 컨설팅 등 이전 또는 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까지 에너지 밸리에 개방형 통합실증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신개발 전력기술·기자재에 대해 개발에서부터 실증을 거쳐 사업화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거점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조 사장은 "에너지 밸리 연구센터를 통해 빛가람 에너지 밸리가 전력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연구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통계청 오늘부터 경제 통합조사

통계청이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의 약 3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5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 전 분야에 대한 구조와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오는 11~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백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동학생)	미취학어린이
평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요일,휴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예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약사, 현역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동구 70m 하남명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서 사산동